

Ⅲ. 위기의 시대,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박수민 선교사

세계적으로는 이주의 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중국선교는 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선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국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중국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¹⁸⁵⁾ 본 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선교의 위기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지금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선교 역사에 나타난 선교의 위기는 반복적이고 교훈적이다. 중국선교의 역사와 그 역사에 나타난 위기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위기 극복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 개념에 정체되어 있던 중국선교의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함으로써 중국선교의 새로운 공간 탐색이 가능해진다.

A. 중국선교의 역사에 나타난 중국선교의 위기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선교와 깊은 연관성 갖고 발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 중국선교가 어떻게 중국기독교의 탄생, 발전, 변화에 이바지했는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선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기초로 오늘날 우리에게 중국선교는 무엇이며, 지금의 중국선교는 어떤 새로운 위기에 처했는가를 살펴본다. 중국선교는 단절과 회복이 반복해서 진행된 역사다.¹⁸⁶⁾ 이처럼 중국선교의 위기는 중국선교의 역사 가운데

185) 王怡, 『십자가를 굽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262-269.

존재했으며, 역사적 흐름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국선교의 위기 분석은 중국선교의 역사적 고찰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1. 중국선교의 역사

본 논문에서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그 시대적 특징과 중대한 변화를 기준으로 여섯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기간은 635년 당나라 네스토리안(Nestorians)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까지의 기간이다. 둘째 기간은 1245년 교황청의 예수회 선교사의 중국 파송으로부터 시작되어 1368년 명나라 멸망과 함께 쇠잔해진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 기간이다. 셋째 기간은 19세기 초 중국의 개화에 시작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때까지의 기간이다. 넷째 기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서부터 시작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다섯째 기간은 개혁개방정책 실행 이후 2012년 시진핑(習近平, Xi Jin Ping) 집권 전까지이다. 여섯째 기간은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2021년 9월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첫째, 기록이 남아 있는 635년 네스토리안의 중국 전래로부터 시작해, 907년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이다. 16세기 예수회의 선교 이전의 중국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는 있으나 대부분 기록된 증거가 없는 전설에 가까운 것들이었다.¹⁸⁷⁾ 그런데 1623년 고대 당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에서 가까운 곳에서 땅을 파던 인부들이 거대한 비석을 발견했고 이 비석은 중국에 도래한 기독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었다.¹⁸⁸⁾ 이 비석은 십자가와 수련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186)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49.

187) 远志明, 『宣教士』, 15.

188) 吳昶興, 『大秦景教流行中國碑』, 新北市: 橄欖出版有限公司, 2013, 23.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¹⁸⁹⁾라고 적혀 있었다. 3m가 넘는 거대한 비석에는 635년 장안에 한 명의 네스토리안 선교사 도착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개괄하여 알려주면서, 중국에 전래한 기독교 전달 역사를 기록하고, 당나라 황제의 덕을 칭송하며 제국에 유익을 주는 기독교를 설명한다.¹⁹⁰⁾ 이 경교비(景教碑)는 781년에 만들어졌다. 이 비석의 발견은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일거에 700년대 때까지로 확장했다. 이 시기는 유럽의 샤를마뉴 대제가 색슨족을 무력으로 개종시키기 150년 전이다.¹⁹¹⁾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화되었던 당나라 시절에, 그것도 매우 관용적이고 학문 부흥을 지지하는 당 태종의 시기에 기독교가 중국에 도착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기독교는 배척받고 선교사는 추방되었을 가능성이 컸다.¹⁹²⁾

중국의 황금 시기였던 당나라 시대, 서기 635년 네스토리안 선교사 알로펜(Alopen, 阿羅本)이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도착했다. 당시는 중국의 황금 시절이었던 당나라 시대였고, 당 태종(太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경교비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알로펜을 지극히 환대했다. 알로펜은 황제의 허락을 받고서 성경을 번역하고 황실에서 교리를 가르쳤다. 황제는 기독교의 전파에 중립적이었으며, 기독교를 특별히 인정하는 종교 관용령을 공포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황제의 학문을 부흥시키려는 관심과도 맥이 통했다. 황제는 당시 장서 20만 권에 이르는 도서관을 지어 학자들을 상주시켜 연구를 장려했고, 이 새로운 종교가 한 권의 책으로 된 책의 종교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도서관에 알로펜을 초청하고 성경 번역을 명령했다. 그리고 638년에 당시 세계 최대, 최고의 도시 장안에, 황제의 계산된 관용으로 황제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 예배처가 세워졌다. 태종을 이어 왕위를 계승한 고종도 기독교에 호의

189) 영어로는 the Nestorian Monument(네스토리안 기념비)라 하며, 이하 경교비로 약칭한다.

190) Sunquist, 『아시아 기독교 탐구』, 47.

191) Moffett, 『아시아 기독교회사』, 457-459.

192) 위의 글, 464-465.

적인 정책을 폈다. 당시 중국 내에는 적어도 11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고, 그때 중국에는 21명의 성직자가 있었다.¹⁹³⁾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경교가 열 개의 성(城)에 전파되고, 경교의 예배당이 백 개 도시에 건축되었다고 한다.¹⁹⁴⁾

651년부터 841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순탄히 발전하던 경교는 고종이 죽은 후, 측천무후 시대에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의 손자 현종 때에 다시 회복되다가, 당 무종(武宗)에 이르러서 황제의 도교(道敎) 숭상 정책의 시행으로 배척받게 되어 급격히 쇠퇴하다가 907년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소멸한다.¹⁹⁵⁾

중국에서 네스토리안의 기독교 선교의 쇠퇴와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하나, 모팻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이다. 변덕스럽고 미신을 잘 믿던 당 무종은 당나라 내내 기독교에 관대했던 정책과는 달리 전에 없던 가혹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840년에서 846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이 핍박의 주 대상은 불교, 마니교, 기독교였다. 둘째는 신학적인 이유다. 경교가 신앙을 희석했다는 비난이 있다. 이런 견해는 경교비의 내용, 남겨진 문서들을 가지고 경교의 유교, 도교, 불교와의 혼재를 공격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역사적 증거들을 검토해 볼 때,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의 중국어 번역의 한계, 선교사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제한, 발굴된 사료들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신학적 이유를 당나라에서의 경교 소멸의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셋째, 선교적인 이유인데 기독교가 결코 중국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선교사들이 전부 페르시아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경교비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이름이 전부 시리아어이거나, 시리아 이름의 중국 발음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당시중국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국어로 쓰인 문서였다는

193) 위의 글, 465-466.

194) 羅冠宗, 『지난 일을 교훈 삼아』, 46.

195) 김학관, 『중국교회사』, 34-35.

것을 고려하면, 경교가 어느 정도 중국의 문화 속에 정착하고 문화적 표현이 가능해졌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주장도 근거가 약해진다. 가장 유력한 주장은 네 번째 주장이다. 네 번째는 중국의 기독교가 너무 오랫동안 황제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권력의 후원과 보호에 의지하다가 제국의 몰락과 함께 쇠퇴했다는 주장이다. 당나라는 8세기 마지막에 이르러 황제의 권력이 약화하다가 마침내 907년 어린 황제의 퇴위로 막을 내린다. 후에 바그다드의 한 네스토리안 수도사가 987년에 보고한 대로 이쯤에 중국에는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교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한 기독교가 되었다.¹⁹⁶⁾

지금까지 당나라의 경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당나라의 경교를 대진 경교라고도 하는데, 경교는 빛나는 가르침, 대진은 로마를 가리킨다.¹⁹⁷⁾ 이처럼 경교는 그 근원은 로마이며 로마로부터 온 빛나는 가르침이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대진경교는 로마의 빛나는 가르침이었지 중국의 빛나는 가르침이 되지는 못했다. 경교는 현지에서 지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현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졌다. 강력했던 황제의 지원을 잃은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에게 철수의 위기가 닥쳤고, 이 위기는 곧장 전체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졌다. 연구자도 마펫이 경교 소멸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경교가 제국의 중앙권력에 너무 의지했던 점이¹⁹⁸⁾ 위기의 주원이라고 생각하며, 기독교가 현지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중국의 빛나는 가르침이 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경교의 실패는 선교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은 유럽과 달리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조체계를 유지했던 나라다. 반면 유럽의 왕들은 서로 경쟁으로 얽혀 있는 국가 네트워크에 속해있었다. 반면 중국의 황제는 그 주변에 어떤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았

196) Moffett, 『아시아 기독교회사』, 481-496.

197) 나카무라 사토(中村敏), 박창수 역,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서울: 홍성사, 2016, 25.

198) Moffett, 『아시아 기독교회사』, 495-497.

다.¹⁹⁹⁾ 중국은 오랜 기간 집중된 중앙 집권 권력이 형성된 국가였고, 여기에 과도하게 의지할 때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에 부딪칠 수 있었다. 경교는 호의 적일 때는 황제의 보호와 협찬을 얻었지만, 반면 황제의 마음이 바뀌거나 제국이 위협에 처할 때는 반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교는 당나라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선교의 중앙권력과의 과도한 친밀, 선교사의 위기가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진 현상은 이어서 설명할 원나라 시대의 중국선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러한 기독교 소멸의 역사만 반복되지는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된 이후 일절 외부와 단절된 채 발전하게 된 중국기독교는 중국선교사와 중국선교의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발전과 성장을 경험했다. 이 기간 중국기독교의 특징은 중앙권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주로 농촌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²⁰⁰⁾

이처럼 경교의 전래, 정착, 쇠퇴의 전 과정과 1949년 이후의 중국기독교 발전의 짧은 비교에서 중국선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중앙권력과의 관계 설정을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또한 일반 대중 가운데 활발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교전략은 선교사의 위기가 중국기독교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방지해 준다.

둘째, 중국선교의 두 번째 시기는 1245년 교황청이 예수회 선교사를 몽골에 파송하면서 시작되어 1784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금교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는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 기간이었다.²⁰¹⁾ 이 기간 로마가톨릭 선교단체들이 중앙아시아를 횡단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프란시스코안이었고, 드물게 도미니칸이 섞여 있었다. 요한은 몽골에

199) John Hirst, *The Short History of Europe*, 김중원 역,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서울: 위즈덤하우스, <https://bitly.co/ACrn>, 2017, 169/233.

200) 王怡, 『십자가를 굽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180.

201) 家麟, 『福臨中華(중화에 임한 복음)-中國現代教會史十講(중국현대교회사 10강)』, 天道, 1988, 23-31.

도착한 최초의 로마가톨릭 선교사였다. 1289년 교황 니콜라스 4세는 이탈리아 프란시스칸인 몬테코르비노의 요한(John of Montecorvino, 蒙高維諾, Meng Gao Wei Nuo)을 중국에 파송했다. 그는 1294년에 원나라 수도 대도에 도착해 원 세조(元世祖)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후 북경에서 30년간 총주교로 활동했다. 1305년에는 6,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북경에 세 개의 예배당을 세웠다.²⁰²⁾ 원나라에서의 중국기독교는 두 개로 나뉘지는데 하나는 요한을 통해 전달된 로마가톨릭이며, 다른 하나는 당나라 때부터 잔해 내려온 경교다. 경교는 당나라 멸망 후 거의 소멸하였으나 몽골족의 마을들에 드물게 산발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몽골어로 야리가온교(也里可溫教),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다. 쿠빌라이의 모친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 교황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예배당이 황궁 지척에 있어서 황제도 예배당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나라에서도 기독교는 황실과 몽골족을 넘어가지 못했다.²⁰³⁾ 가까운 황실에까지 울려 퍼졌던 찬양 소리가 황실의 벽을 넘어 퍼져나가지 못했다. 1368년 주원장의 명에 의해 원이 멸망한 후 기독교도 점차 사라져 갔다.

원나라 시기의 중국선교도 당나라 시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때 권력의 중심부에서 환영, 보호, 그리고 지원을 받았지만, 그 중앙권력이 약해지면서 함께 쇠약해졌다. 당시 로마가톨릭 선교사로 대변되는 중국선교사의 위기는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졌다. 당나라 경교의 선교, 원나라의 로마가톨릭 선교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가 일반 대중 속으로 얼마나 스며들고 뿌리를 내리는가는 중국기독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임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는 1552년 광주(廣州) 상천도(上川島)에 상륙해 본격적인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생을 마친 예수회 소속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co

202) 김학관, 『중국교회사』, 35-39.

203) 远志明, 『宣教士』, 21-22.

Xavier, 1506-1552)다. 하비에르의 중국에서의 기간은 1552년 10월부터 12월로 불과 2개월에 지나지 않는다.²⁰⁴⁾ 하비에르는 16세기 아시아 선교의 개척자다. 그는 인도, 일본에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이루었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문을 두드리며 생을 마감했다. 1557년에는 곤잘레스(Gonzalez)가 마카오에 들어와 교회를 개척했고, 1568년 카르네이로(Carneiro)가 마카오 주교로 임명받아 선교 사역을 했다. 1579년 7월에는 선교사 루게리(M.Ruggieri)가 거주 허가를 받고 최초로 중국에 거주한 선교사가 되었다.²⁰⁵⁾ 1582년 4월 26일 이탈리아인 마테오 리치(Mateo Ricci, 利瑪竇, Li Ma Dou, 1552-1610)가 마카오에 도착한다. 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저술, 그가 남긴 지도 제작술 등 기술적인 공헌, 그리고 창의적이었던 선교 방법론 등은 동아시아 기독교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²⁰⁶⁾ 마테오 리치는 명 왕조 200년간 단절되었던 기독교 선교의 기초를 다시 놓은 사람이다. 예수회는 중국문화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기독교에 유교의 옷을 입히는 선교전략을 시행했다. 1603년 마테오 리치는 천학실의(天學實義)를 썼는데, 이 책에는 로마가톨릭의 교리와 중국 전통사상, 문화를 대조적으로 설명해서 기독교의 로마가톨릭의 중국화 추구를 보여주었다. 1610년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28년을 보내고 5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²⁰⁷⁾ 명나라 고위 관료 중에도 세례를 받는 이들이 나왔다. 이중 서광계(徐光啟)는 재상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중국 역사상 첫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소양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부단히 선교사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백성의 실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후에 농사에 관련된 전문서적인 『農政全書』를 지어서 중국농업의 녹색혁명을 주도했다.²⁰⁸⁾

예수회의 선교는 그전의 네스토리안 중국선교보다는 진보를 이룬 선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현지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선교와의 접촉점

204) 김상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서울: 흥성사, <https://bityl.co/9nOI>, 2010, 261-267/294.

205) 김학관, 『중국교회사』, 36-37.

206) 김상근,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 서울: 한들, 2006, 119.

207) 김학관, 『중국교회사』, 37-39.

208) 远志明, 『宣教士』, 26-30.

을 찾고, 그 접촉점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선교전략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명나라 말기에는 궁중에만 500여 명의 신자, 전국에 20여만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은 훗날 개신교 선교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²⁰⁹⁾

그러나 로마가톨릭의 선교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는 일련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청나라 초기에 이르러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는 예의논쟁(禮儀之爭)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회의 현지 문화 존중의 선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문화와 피할 수 없는 충돌 부분이 있었다. 1645년 교황청은 상제란 명칭과 공자제례를 금할 것을 명했다가, 1656년에는 융화의 태도를 보여 선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나 1704년에는 다시 주교 회의에서 중국의 모든 제의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1706년 강희황제는 이에 반대하고 로마 교황청의 지시에 따르는 모든 선교사의 중국 거주 거부 지시를 내렸다. 1715년 교황 클레르망 11세가 다시 더 강한 금지령으로 응답했고, 강희제도 더 강력하게 반응하여 중국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글이든 읽는 자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다. 그리고 1723년 옹정(雍正)황제는 모든 교회의 폐쇄와 6개월 안에 선교사가 중국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고, 모든 기독교 활동을 금지했다. 둘째는 청나라 조정의 장기적인 금교정책(禁教政策)이었다. 이는 예의 논쟁과도 관련이 깊다. 셋째는 로마 교황청의 예수회 해산이다.²¹⁰⁾ 이로 말미암아 중국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다수를 차지했던 예수회 활동은 지속될 수 없었다.

명나라에서부터 청대초기에 이르는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는 현지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 전략적인 선교전략, 그리고 조금이지만 일반인에게도 복음 전파를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장의 유용한 선교전략을 지속해서 지지해야 할 선교본부인 교황청이 선교 현장을 깊이 고

209) 김학관, 『중국교회사』, 39.

210) 家麟, 『福臨中華(중화에 임한 복음)』, 30.

려하지 않는 결정으로 중국선교를 약화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로마가톨릭 내부의 문제였다. 이로 말미암아 300개의 예배당, 50여 명의 선교사, 20~30여만 명의 신자들이 위기에 처했다.²¹¹⁾ 또한 네스토리안의 중국선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지배계층 중심의 선교전략의 한계다. 물론 예수회 선교사들이 황실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나갔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작된 로마가톨릭 운동이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황제와 황실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황실의 종교로 일반인대중에게 비추어질 때, 고난과 겸손이라는 십자가 종교의 특성을 드러내기는 어렵다. 또한 중심 권력의 기독교가 되면, 황제가 한순간에 기독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독교는 존립마저도 위협받게 된다. 일반대중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추방 등으로 중국선교사의 위기가 올 때, 이 위기는 곧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선교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중앙권력과 적절한 거리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일반대중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국선교는 당나라 시기의 경교로부터 시작되어 원나라 시기의 야리가온교를 거쳐 명나라와 청초기의 로마가톨릭 선교로 이어졌다. 약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중국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중국선교의 문은 잠시 열렸다가 다시 닫히기를 반복했다. 중국선교의 문은 청나라 초기 문이 닫혔다가 100여 년이 지난 19세기 초에 이르러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²¹²⁾

셋째, 19세기 초 중국의 개화기에 시작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때까지의 기간이다. 19세 초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근대 선교운동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선교단체가 설립되고,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선교는 이제 서구 기독교의 전면에 부상했으며, 영적

211) 远志明, 『宣教士』, 38-39.

212) 위의 글, 40-41.

각성 운동은 선교운동을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했다.²¹³⁾ 또한 이 시기 유럽과 북미는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원도 풍부해졌다. 신앙적으로도 무디(D.L. Moody)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의 출현으로 각지에서 복음 전도 집회가 활성화되고, 기독교청년회(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해외선교지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등이 일어나 청년, 학생들이 선교에 대거 동참했다. 이에 힘입어 1858년 81명에 불과했던 중국선교사는 1893년 1,324명으로 증가했다.²¹⁴⁾

한편 청나라는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영토를 확보하고 최고의 번영기를 보냈다. 그렇지만 청나라는 지속한 강압정책과 관료들의 부패 등으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후기에는 열강들의 통상압력에 끌려가는 왕조가 되어버렸다. 서구는 발달한 무기와 기술을 앞세워 봉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청나라를 압박하고 침략했다. 청나라는 서구국가와 대결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阿片戰爭)은 1842년 남경조약(南京條約)으로 이어졌다. 남경조약으로 연해주가 개방되고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해 중국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 중국선교가 시작됐다.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을 통해 내지가 개방되고 본격적인 개신교의 내지선교가 시작되었다.²¹⁵⁾ 아편전쟁, 그리고 남경조약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개신교 중국선교는 태생적인 불명예를 안고 선교를 시작했다. 이는 아편전쟁은 불명예스러운 전쟁이요, 남경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기독교는 서구의 제국주의, 이와 어느 정도 연관된 선교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중국인들 가운데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배외사상, 반교사건 등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산당 사관은 필요할 때면 이 약한 출발점을 지독하게 파고든다. 현대 중국선교의 탄생에 자리 잡은 이 역사적 비극

213) Scott W. Sunquis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Participation in suffering and Glory*, 이용원, 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교출판부, 2015, 183,189.

214) 梁家麟, 『福臨中華(중화에 임한 복음)』, 68-69.

215) 김학관, 『중국교회사』, 41-43.

을 이해해야 중국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¹⁶⁾

아편전쟁 그리고 뒤이은 남경조약 체결 이전에는 중국에서 선교사는 불법 입국자였다. 이들은 주로 마카오와 남부 해안인 광주 일대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중국입국이 불가했고 전도가 불법이었으므로 선교사들은 주로 언어를 습득하거나, 기독교 문서 발행, 의료 기관 설립과 같은 사전 준비작업에 집중했다. 그리고 중국입국이 어렵다고 판단한 많은 선교사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서 사역했다.²¹⁷⁾ 그러나 남경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선교사들의 연해주 광주(廣州), 복주(福州), 하문(廈門), 영파(寧波), 상해(上海) 5개 지역에서 입국과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1859년 청나라 정부가 신교 자유를 허락함에 따라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게 된다.²¹⁸⁾

개신교의 중국선교는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시대와 내륙선교의 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안 선교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최초의 인물은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 MaLiXun, 1782-1834)이다. 모리슨은 남경조약 이전의 선교사다. 그는 1807년 9월 7일 중국의 광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거주와 신변 안전을 위해 1809년 2월부터 영국의 동인도회사에서 통역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인이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런 상인의 신분이었다. 1814년 7월 그의 문서 사역을 돕던 차이까오(蔡高, CaiGao)가 세례를 받아서 중국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형제들인 차이썩(蔡興, CaiXing), 차이산(蔡三, CaiSan)도 세례를 받았다. 그는 1818년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영화서원(英華書院)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1819년 11월 25일 런던의 선교회에 친구약 성경 번역이 완성되었음을 보고했는데, 이는 무려 12년 3개월의 시간을 투자해 성경 번역을 완성한 것이다. 1820년에는 중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1821년에는 중국 최초의 개신교

216) 梁家麟, 『福臨中華(중화에 임한 복음)』, 50.

217) 김학관, 『중국교회사』, 42.

218) 위의 글, 65.

예배당을 건립해 헌당했다. 그리고 1823년에는 최초의 증영사전인 『華英字典(화영사전)』을 편찬했다. 같은 해에는 또한 중국 최초의 현지 목사인 리양파(梁發, LiangFa)를 안수했다. 리양파는 후에 중국인에 의해 집필된 최초의 전도 소책자 『勸世良言(세상에 권하는 좋은 말씀)』을 남겼다. 모리슨은 가장 어려운 개척기에 중국선교를 27년간 감당하며 1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834년에 선교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²¹⁹⁾

모리슨과 같은 시기의 인물로 주목할 만한 선교사로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윌리엄 밀네(William Milne, 米憐, MiLian, 1785-1822)가 있다. 밀네는 런던선교회가 파송한 두 번째 선교사로 모리슨의 요청으로 중국에 왔다. 그는 중국과 동인도회사의 반대로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마카오에서 중국선교를 감당했다. 밀네는 모리슨과 동역하며 1815년에는 『察世俗每月統計傳, The Chinese Monthly Magazine』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서구의 종교, 천문, 지리, 문화 등을 소개했다. 1816년에는 인쇄소를 설립하고, 1818년에는 모리슨과 함께 영화서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밀네는 선교지에서 먼저 떠난 두 자녀와 부인을 따라 1822년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리슨과 밀네의 중국선교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들의 중국선교가 중국 밖에서 이루어진 중국선교였다는 것이다. 남경조약 이전의 서구인은, 특히 선교사는 중국에 입국하기 어려웠다. 1522년 로마가톨릭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중국에 입국을 못 하고 중국이 보이는 상천도에서 생을 마감했다.²²⁰⁾ 모리슨의 경우에는 마카오와 광주를 오가며 사역을 진행했고, 밀네는 입국이 거부되어 주로 마카오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했다. 이들의 선교사역은 훗날 중국기독교와 후배 선교사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사전 편찬, 성경 번역, 잡지 발행 등의 문서 사역, 그리고 중국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인재 양성의 교육사역 이었다.²²¹⁾ 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신교 근대 중국선교는 중국

219) 远志明, 『宣教士』, 44-53.

220) 김상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245-247/294.

221) 远志明, 『宣教士』, 132.

의 영토 밖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훗날 이들의 선교는 중국선교 황금기를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개신교의 중국선교는 이렇게 초기, 씨 뿌리는 시기를 지나 아편전쟁과 남경조약으로 새로운 전기가 생겨났다. 남경조약은 5개 항구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조차지 거주를 허용했다. 선교사의 중국입국과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해안지역의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안선교 시대가 열리게 된다.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파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1858년에 이르러서는 20여 개의 단체에서 200여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게 되었다.²²²⁾

당시 중국에 들어와 활동한 선교사와 단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戴德生, 1832-1905)다. 테일러는 1854년에 중국 상해에 도착했다. 테일러는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과는 다른 선교전략과 방법을 시행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과 중국인들의 복장을 착용했다. 그리고 테일러는 해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지 선교를 시행했다. 그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설립하고 도착화된 내지 선교를 시작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1900년 의화단의 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내지 선교회에 속한 56명의 선교사와 23명의 자녀, 수백 명의 중국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잃었다.²²³⁾ 그러나 중국 내지 선교회는 서구열강과 달리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과 선교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훗날 2004년 중국의 대표적인 공산당 신문인 인민일보에서는 매우 드물게 이런 테일러의 업적을 기려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출간했다.²²⁴⁾ 의화단의 난이라는 시련을 딛고 중국 내지 선교회는 설립 후 20여 년간 137명의 선교사, 45개의 교회, 141개의 전도소를 개척하고 1,764명에게

222) 김학관, 『중국교회사』, 83.

223) Hudson Taylor, *Hudson Taylor*, 김지찬 역, 『거침없는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서울: OMF생명의말씀사, 1997, 213.

224) 출간된 책의 중국어 서명은, 『帶著愛來中國(사랑을 품고 중국에)』으로 2004년 인민일보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세례를 베풀었다.²²⁵⁾ 테일러와 내지 선교회가 중국선교와 세계선교에 남긴 영향은 엄청나다. 재정후원을 요청하지 않은 믿음선교(Faith missions), 내륙선교(Inland mission)는 해안선교 시대에서 내륙선교 시대로 선교의 흐름을 인도했고, 이후 4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영향을 받아 믿음선교와 내지선교를 모토로 삼아 세계선교를 감당했다.²²⁶⁾ 이처럼 19세기 중국선교는 현장에서 개발된 믿음선교, 내지선교, 네비우스선교(Nevius mission)²²⁷⁾ 등을 통해서 세계선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1900년 전후로 전국적으로 의화단의 난을 겪었지만, 중국선교는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07년 마태오 리치 중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3차 상해 선교사대회에서 자치(自治), 자전(自傳), 자양(自養)의 삼자 원칙이 중국선교의 중요한 원칙임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1919년 28년 만에 성경 번역에 완결되어 마침내 중국어 표준 성경인 『허허뻐(和合本, HeHeBen)』이 출판되었고 이 성경은 현대 중국어 발전에도 이바지했다.²²⁸⁾

중국선교는 중국의 교육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1817년 모리슨이 말라카에 세운 중국인들을 위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세운 영화서원을 필두로 해서 1842년 아편전쟁 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50여 개가 있었으며, 1877년에는 347개에 다다랐다. 1900년 의화단의 난이 발생할 시점에는 이미 학교 수가 2,000개나 되었다. 1949년 보고에 의하면 영미 양국이 중국에 건립한 대학이 31개, 도서관이 29개, 중학교가 324개, 초등학교가 2,364개에 이른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저명한 대학들로는 1948년 미국과 영국이 함께 설립한 북경연경대학(北京燕京大學)이 있으며, 후에 이 대학의 문리학부는 북경대학으로, 공학부는 칭화대학으로 분리되어 발전했다. 상해에 설립된 성요한대학은 후에 복단대학, 화동대학, 상해교통대학으로 나뉘어 발전했다.²²⁹⁾

225) 远志明, 『宣教士』, 56-60.

226) Jonathan Lewis, *Kairos: World Outreach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Manukau: World Outreach, 2011, 12-14.

227)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중국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가 자신의 중국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중국선교의 전략과 방법이다.

228) 远志明, 『宣教士』, 66-67.

1911년에서 1919년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 교회의 중요한 발전기였다. 1911년 중국 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났다. 신해혁명으로 중국 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전개된다. 먼저는 1902년부터 1919년까지 전개되는 독립교회 운동이다. 두 번째는 1919년에서 1927년까지 전개되는 중국기독교 토착교회 운동이다.²³⁰⁾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선교사 수는 6,204명으로 증가했고, 신자의 수도 36만여 명으로 1910년에 비해 4배가 증가했으며, 중국인 전도인의 수는 12,967명, 자립한 교회 수는 4,727곳, 전도처는 약 6,480개였다.²³¹⁾

이 시기 중국선교는 이전의 경교의 중국선교, 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을 향하는 선교로 발전했다. 또한 복음을 전파와 동시에 의료, 교육, 출판 등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선교에도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전략의 효과는 1949년 이후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세 번째 기간의 중국선교는 이전의 중국선교가 갖고 있던 약점을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토착화, 상황화, 대중화라는 큰 방향을 잘 잡고 있었으며, 중국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 특히 소수 중앙권력자나 기득권층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해 나갔다.

넷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의 중국선교 기간이다. 이 시기의 중국선교는 전혀 외부의 도움이 없이 중국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 뿌리내리고 자라나던 중국 교회에 의한 중국선교의 기간이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정식으로 건국되었다. 공산당의 일당 지배하의 중국은 중국 교회와 중국선교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1950년에서 1951년 사이에 모든 선교사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²³²⁾ 1949년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날 때 중국의 기독교인 수

229) 위의 글, 80-90.

230) 趙天恩, 『中國教會史 論文集(중국교회사 논문집)』, 台北: 宇宙光, 2006, 143.

231) 김학관, 『중국교회사』, 123.

232) 위의 글, 181-184.

는 대략 로마가톨릭이 300만 명,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75만 명 정도였다.²³³⁾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1954년 7월 28일 244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북경에 모여 제1차 전국 기독교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삼자애국혁신운동에 기초한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三自會)²³⁴⁾가 세워졌다. 이렇게 삼자회에 가입한 교회를 삼자교회라 하였고, 이 삼자회는 중국의 기독교를 대표했다.²³⁵⁾ 1954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했으나, 1958년 대약진 운동 이후 종교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가해져서 몇 개의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는 소멸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구금되었다.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기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신자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비판과 노동 개조에 처했고, 삼자회 마저도 해체되고, 삼자회 간부들은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²³⁶⁾ 교회가 문을 닫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의 시작이다. 외부의 거친 환경이 진정한 중국의 토착교회를 탄생하는 강력한 계기가 됐다.²³⁷⁾ 가정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신학 사상, 중국의 자립교회가 오랜 기간 가져온 역사적 전통 그리고 공산화 이후에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 기초해서 자신들만의 신학과 교회를 형성해 갔다. 가정교회의 뿌리는 20세기 초반부터 있는 중국의 자립교회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소군교회(小群教會)의 위치만 니(倪柝聲), 예수 가정교회(耶穌家庭)의 경전영(敬奠瀛), 왕명도(王明道) 같은 지도자들, 도제식의 신앙교육, 보수성과 문자주의, 영해에 입각한 성경해석, 가부장적인 리더십, 비제도적인 교회 조직, 평신도 중심의 교회 운영의 영향을

233) David Aikman, *Jesus in Beijing: How Christianity Is Transforming China And Changing the Global Balance of Power*, Washington: Salem Books, <https://amz.run/55v7>, 2003, 44.

234)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기독교 조직으로 정식 명칭은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委員會, National Committee of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China, National TSPM)로 이하 삼자회로 약칭한다.

235) 이병길,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243-245.

236) 위의 글, 246-248.

237) 王怡, 『십자가를 짊어지고(중국가정교회 역사 1807-2018)』, 135.

받으면서 공산정권하에서의 자기 신학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²³⁸⁾

1940년대 중국에서 복음주의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던 대학생, 선교사들은 1950년 이후 중국을 떠나 동남아, 대만 등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개척했다. 이들을 통해서 대만 캠퍼스 복음 단체(CEF, 台灣校園福音團契, 1957년 설립), 홍콩 기독교 학생 복음 단체(FES, 香港基督徒學生福音團契, 1957년 설립),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학생 사역이 개척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학생과 지식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성경 공부, 학생단체나 교수단체 개척, 복음 캠프, 각종 수양회, 문서 사역, 제자 양육 사역 등을 진행했다. 이런 사역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양육된 학생들은 졸업 후 다수 북미로 유학했고, 이들을 통해서 북미 디아스포라 중국인 대상의 캠퍼스 성경 공부 모임, 학생단체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런 단체와 성경 공부 모임은 훗날 북미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²³⁹⁾ 중국선교사들은 철수로 위기에 처했지만,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을 찾아 발전하고 자립하고 성장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 일은 중국선교 역사상 세 번째의 철수다. 첫 번째 철수는 당나라의 경교의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의 철수, 두 번째는 청나라 초기 선교를 담당했던 로마가톨릭 선교사들의 철수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49년 이후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철수했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철수는 대부분 중국의 중앙 집권 권력에 의한 비자발적 철수였다.²⁴⁰⁾ 세 번의 중국선교 철수 모두 중국의 중앙 집권 세력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1949년 이후 이루어진 세 번째 철수는 그전의 철수와 구분되

238) 이병길,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256-261.

239) 蘇文峰, 『大洋彼岸的長河-美國華人查經班回顧與展望(미국 중국인 성경공부 모임의 회고와 전망)』, California: OCM, 2015.

240)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53.

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철수한 선교사들이 중국에 남긴 것은 그전의 중국 선교 철수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세 번째 시기의 중국선교는 모리슨이 중국에 도착한 1809년부터 1949년 140년의 선교 기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황제가 그 측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일반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일반 대중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고, 이들을 오래된 악습에서 해방하고 계몽하는 일을 했다. 서구 선교사들은 자신을 복음 전파자 이면서, 동시에 도덕의 개혁자로 생각했다.²⁴¹⁾ 일반 대중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서적을 발간했다. 이들을 훈련하고 사역자로 세웠다. 당시 입국했던 선교사들 대부분은 일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는 황궁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외국이 많이 사는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 진행됐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중국과 서구의 관계, 입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모리슨 이후 중국에 입국했던 대부분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으며, 이들의 선교사상, 선교전략은 이전 시대와 달랐다. 그래서 1950년 전후해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철수하면서 남겨 놓았던 선교적인 유산은 황제의 황궁 안이 아니라, 평범한 형제, 자매들의 가정 안에서 발견되었다. 세 번째 시기의 중국선교는 황제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선교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라는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선교였다. 선교사들은 일반 대중의 삶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중국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중간역할을 감당해냈다.²⁴²⁾ 그래서 중국선교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었으며, 중국 밖에서 볼 때중국 교회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핍박과 압력을 받아 거의 소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을 방문한 수많은 이들은 그 반대의 상황을 목격했다. 중국기독교는 소멸하지 않았고 농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

241) 趙天恩, 『中國教會史 論文集(중국교회사 논문집)』, 135.

242) 远志明, 『宣教士』, 91.

었다. 중국선교사의 위기는 중국기독교나 중국선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철수한 선교사들도 대부분 인접 국가인 홍콩, 대만, 동남아로 재배치되어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로 중국선교를 이어갔고 선교사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다.²⁴³⁾

1940년대 중국에서 복음주의 학생단체에서 활동하던 대학생, 선교사들은 1950년 이후 중국을 떠나 동남아, 대만 등으로 옮겨서 선교했다. 이들을 통해서 대만 캠퍼스 복음 단체(CEF, 台灣校園福音團契, 1957년 설립), 홍콩 기독교 학생 복음 단체(FES, 香港基督徒學生福音團契, 1957년 설립),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학생 사역이 개척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학생과 지식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성경 공부, 학생단체나 교수단체 개척, 복음 캠프, 각종 수양회, 문서 사역, 제자 양육 사역 등을 진행했다. 이런 사역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양육된 학생들은 졸업 후 다수 북미로 유학했고, 이들을 통해서 북미 디아스포라 중국인 캠퍼스 성경 공부 모임, 학생단체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과 성경 공부 모임은 훗날 북미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²⁴⁴⁾ 중국선교사들은 철수로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는 중국선교와 중국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선교공간을 찾아 자립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

다섯째,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부터 시작해 2012년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체제 전까지의 중국선교다.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Deng XiaoPing)은 4개의 현대화노선을 주창하면서, 중국식 실용주의 노선을 선포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1980년 8월 4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1982년에는 개혁, 개방 원칙을 담은 신헌법을 선포했다. 그리고 종교정책에서도 개혁개방이

243) 김영동, "입국 거부와 추방 선교사의 역사적 통찰과 전망-중국 공산화 이후와 최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47집, 2019, 27-28.

244) 蘇文峰, 『大洋彼岸的長河-美國華人查經班回顧與展望(미국 중국인 성경공부 모임의 회고와 전망)』, 9-11.

시행되었다.²⁴⁵⁾ 이와 동시에 중미 수교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비공식적인 선교를 시작했다. 삼자애국운동도 다시 회복되어 삼자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삼자신학교도 재건되어 남경(南京)신학교도 문을 열었다. 1986년에는 북경의 삼자 소속 신학교인 연경(燕京)신학교도 문을 열었다. 1982년의 신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중국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1980년 경제특구 설치와 그 이후 연안 지역이 개방되고 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중국의 해안선교 시대가 재개되었다. 1991년에는 중국기독교협진회가 세계기독교연합회(WC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인 중국기독교의 국제 활동이 재개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도 본격적으로 중국선교를 재개하게 된다. 이는 1903년 산둥(山東)지역에 3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후 70년 만의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 파송이었다. 개혁, 개방으로 가정교회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삼자교회를 통한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과 통제는 여전히 지속됐다. 1983년 5월부터 삼자교회는 일부 가정교회를 반혁명 집단으로 규정하고, 10월부터는 반 범죄 운동이 전개되어 대대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 많은 성도가 투옥되고, 압력에 못 이겨 삼자에 가입하는 가정교회가 늘었다.²⁴⁶⁾ 가정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핍박으로 전도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런 가운데 복음이 중국 내지와 변경지역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 가정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더욱 조직화하고 선교와 개척중심, 평신도 중심의 훈련체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몇몇 유명한 전도자들의 전도 여행과 집회만이 존재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기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일어났고, 이들을 통해서 뿌려진 수많은 씨가 열매 맺어 교회가 세워졌다.²⁴⁷⁾

1989년 6.4에 일어난 천안문 사태는 중국사회, 중국 교회, 특히 해외 중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245)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63.

246) 김학관, 『중국교회사』, 233-235.

247) 趙天恩, 『中國教會史論文集(중국 교회사 논문집)』, 99.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학생 지도자들이다. 후에 당시 민주화 시위 지도자 30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중국인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 이라크 참전 군목, NGO 지도자들이 되어 북미 및 세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²⁴⁸⁾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실패를 겪으면서 중국 지성인들의 전통적인 반감이 수그러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종교적 핍박과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복음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외국 선교사들의 사역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출현했고 성장했다. 중국의 교회는 크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뉘어 있는데, 가정교회는 다시 삼자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가정교회,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어진 도시 가정교회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교회는 그 개방성 여부에 따라 공개적 가정교회, 반공개적 가정교회, 비공개적 가정교회로 나뉜다.²⁴⁹⁾

1990년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에 따라 대도시가 다수 등장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그리고 발전하는 도시에 이전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도시 가정교회(Emerging Urban House Church)의 출현이다. 도시 가정교회는 전통 가정교회의 전통을 따라 삼자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도시의 지식 계층이나 해외 유학으로부터 귀국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목회자들도 고학력의 목회자들이 전임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독립적인 조직과 독자적인 예배 형태 그리고 목회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을 추구하며, 고립적인 형태보다는 연합하는 교회로 나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해서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했다. 사천성(四川省) 대지진 때에는 피해지역 지원 및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248) Miriam Adeney, *Kingdom Without Borders-The Untold Story Of Global Christianity*, Illinois: IVP Books, 2009, 49.

249) 김학관, 『중국교회사』, 235-236.

여했고, 정부의 탄압에도 공개적인 항의와 법에 따른 투쟁으로 맞서는 교회들도 나타났다.²⁵⁰⁾

중국의 기독교인 통계에는 매우 다양한 주장이 공존한다. 한국 중국선교 협의회(KCMA)에서는 아시아 하베스트의 2010년 통계를 인용해서 중국 그리스도인(로마가톨릭 신자 포함)은 약 1억 347만 945명으로 중국 인구의 7.63%에 달한다고 보고했다.²⁵¹⁾ 이 외에도 삼자교회의 공식적인 통계를 2,500만 명으로, 비공식적인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인구의 1%까지도 보는 견해도 있다. 이제 중국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 쉽게 기독교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²⁵²⁾ 지금의 중국은 매우 많은 지역과 많은 분야에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

여섯째의 중국선교 기간은 2012년 11월 시진핑 체제의 시작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다. 시진핑이 등장 이전까지 세계 선교계는 시진핑의 집권이 중국기독교에 더욱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라고 예상했다.²⁵³⁾ 중국정부가 여전히 선교사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을 여는 듯했고, 점점 발전하는 경제와 개방되는 사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개방과 자유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등장은 기대와 달리 중국 교회, 특히 가정교회에 새로운 고난의 시기를 열었다. 미국 인권단체인 중국 구호협의회(China Aid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일부 가정교회의 지도자와 도시의 가정교회에, 2010년에는 기독교 인권 변호 단체 등에 대해서 행해지던 제약이,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기독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압력대상과 체포대상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광범위해졌다. 2011년 10월에는 티베트 자치구 라사(拉薩)에서 11명의 가정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이 체포되고 티베트어 성경책 2,000여

250) 김석주, "개혁개방 이후중국 교회 현황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기독교 사상」 통권 제696호, 2016, 75-76.

251) 함태경, 『알았던 선교 몰랐던 중국』, 111/175.

252) Aikman, *Jesus in Beijing*, 7.

253) 함태경, 『알았던 선교 몰랐던 중국』, 14/175.

권이 압수됐다.²⁵⁴⁾ 2013년 7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고, 두 달이 지난 후 시행세칙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가 반포되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중국정부는 한국 교회가 파송한 중국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더 강력한 종교정책이 시행되어 선교사들이 대대적으로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었다.²⁵⁵⁾ 2018년 2월 1일 종교 사무조례의 시행 전후로 벌어지고 있는 비공인 교회 폐쇄, 전국적인 교회 건물의 십자가 철거와 교회 내 감시카메라 설치, 오성홍기(국기) 게양, 특정 교회 예배당 폭파와 재산몰수, 개종 강요, 대규모 선교사 추방 및 입국 불허, 각종 법적인 방해조치 시행은 시진핑 체제에 걸었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기대를 산산 조각냈다. 2018년 9월 베이징의 최대 도시 가정교회인 시안교회가 전격적으로 강제 폐쇄됐다. 이 교회는 정부의 공안 조직과 매우 관계가 좋았던 교회였지만, 정부의 압박대상에는 예외가 없었다. 정부는 뒤이어 12월에는 광저우의 룡구이리교회,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를 연이어 폐쇄했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중국화, 특히 기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행한 사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종교 규정에는 비 종교단체, 비 종교학교, 비종교 활동 장소에서는 종교교육 훈련을 열 수 없으며, 공민은 국외로 나가 종교 방면의 교육이나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정부가 공인하지 않은 교회가 해외와 연결될 때 이는 현행법 위반이 되어 언제든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²⁵⁶⁾

시진핑 체제의 종교에 대한 기본 생각은 전통적인 삼자론과 종교 오성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 오성론이란 종교의 기반에 대해서 장기성, 균중성, 민족성, 국제성, 복잡성으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중국정부는 이전의 공산당 이론에 근거한 종교의 소멸에 대한 견해를 철회하고, 종교의 계속 존재

254) 위의 글, 65/175.

255)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79-80.

256) 함태경,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와중국 교회, 중국선교 그리고 선교중국," 「KMQ」 통권 제69호, 2019, 122-123.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용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통치 스타일을 채용하면서도 마오쩌둥이 간과했던 중국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시행하고 여기에 통치적 가치를 부여했다.²⁵⁷⁾

시진핑 체제의 새로운 종교정책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선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현장의 선교사들이 2018년 이후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이상의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정부의 정책 전환이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종교정책이 엄격하게 실행되기 시작했고, 종교에 대한 정책계획서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중국 교회에 대한 박해와 중국선교사에 대한 추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둘째는 2017년 5월, 5명의 중국인 청년이 파키스탄에서 IS에 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배후에 한국선교단체인 인터콥이 관련된 것으로 중국정부가 주목했다는 주장이다. 시기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가 가속화되었던 2018년 전후로 거의 일치한다. 셋째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 그리고 촛불집회로 인한 대통령 탄핵의 영향의 파급효과에 대한 경계 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원인이 되었든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정부가 기독교, 중국기독교, 특히 중국선교사가 자신들의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⁸⁾ 이러한 배타적 인식과 정책의 방향은 그동안의 점진적 개방과 발전에서 방향을 전환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시기로 퇴보하는 모양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은 원래 계획에 좀 더 충실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종교가 중국공산당 정부가 추구하는 중국몽이라는 비전의 실천에 동의하고 협력하며, 중국공산당이 정해진 테두리 안

257) 고영은, "중국 시진핑 정권의 권력 구조와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51집, 2019, 199-205.

258) 최진호, "선교사 입국 거절 상황과 대응-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89-91.

에서만 활동하도록 강제한다. 중국정부는 종교를 국가의 안전 문제와 연결하여 관심과 관리를 격상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속해서중국 교회에 주목하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종교 사무조례 제9조에²⁵⁹⁾ 근거해서중국 교회의 세계선교를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후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중국 교회와 중국 기독교인들은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 이 세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²⁶⁰⁾ 연구자는 이러한 정부의 종교정책에 실망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해 오는 가정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이탈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목소리를 내서 항의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타협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중국 교회의 상반된 반응과 대처는 후일중국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259) 第九条 全国性宗教团体和省、自治区、直辖市宗教团体可以根据本宗教的需要按照规定选派和接收宗教留学人员, 其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选派和接收宗教留学人员 (제9조, 전국규모의 종교단체와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는 종교적 필요에 따라, 규정에 근거해서 종교유학 인원을 선발, 파견과 유학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타 허가 받지 않은 임의의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적 이유로 선발파견이나 유학생을 받을 수 없다.);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9/07/content_5223282.htm. 검색일: 2021년 3월 27일.

260) 경제학자 앨버트 허쉬만(A. O Hirschman)은 그의 책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기관, 국가 구성원이 이탈, 항의 충성의 3가지 종류의 선택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허쉬만의 주장을 사용해서 중국선교의 위기에 대한중국 교회의 반응을 이탈, 항의, 충성으로 예상해 본다.

[도표 3] 중국선교의 역사(시기, 특징, 키워드 중심으로)²⁶¹⁾

시대구분	연도 및 기간	운동의 중심	특징	키워드
①경교의 중국선교	635~907 당 태종 시기부터 당나라 멸망까지	네스토리안 선교사들	네스토리안 선교 경교 황실 중심의 선교 비자발적 철수	황실 중심 네스토리안
②로마가톨릭의 중국선교	1245~1784 명나라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마태오 리치 예수회	로마가톨릭 예수회 황실 중심 상황화 선교 예의 논쟁 중앙권력의 핍박 비자발적 철수	마태오 리치 상황화 선교 황실 중심
③개화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까지의 중국선교	1816년~1949년 개화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까지	로버트 모리슨 허드슨 테일러 무명의 선교사들	제국주의 개신교 선교 내지선교 학교,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영역의 근대화 기여 중앙권력의 핍박 비자발적 철수	내지선교 토착화 대중 전도
④가정교회의 중국선교	1949년~1978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부터 개혁개방 전까지	왕밍따오 무명의 현지 현신자들 농촌 가정교회	삼자회 농촌 가정교회 중국 교회의 토착화 독립적인 발전	삼자회 농촌 가정교회 토착화 자립화
⑤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선교	1978년~2012년 개혁개방부터 시진핑 체제 전까지	농촌 가정교회 도시 가정교회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	도시 가정교회 가정교회 부흥기 중국선교사 중국 교회 중국기독교의 선순환 발전 최고의 부흥기	개혁개방 도시 가정교회 선교중국

261) 연구자가 중국교회사, 中國教會史論文集, 宣教士 등의 중국선교 역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표다. 이 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을 구분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㉔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선교	2012년~현재까지 시진핑 집권부터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 도시 가정교회	신종교 사무조례 기독교 중국화 엄격한 종교관리 중앙권력의 꺾박 비자발적 철수	시진핑 기독교 중국화
----------------------	--------------------------------	----------------------------	--	-------------------

2. 역사로 본 중국선교의 위기

김광성에 의하면 중국에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와 입국 거절에 따른 선교의 위기를 중국선교의 위기로 볼 수 있다. 김광성에 의해서 강조되었듯이 사실 이러한 중국선교의 위기 상황은 처음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반복됐음을 알 수 있다.²⁶²⁾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중국선교의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위기는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찾아왔다. 서기 635년 네스토리안 선교사 알로펜의 장안 도착으로 경교의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다. 당 태종의 환영과 지지로 시작된 경교의 중국선교는 비교적 순탄한 발전을 지속하다가 중앙권력인 황제의 경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배척받아 급격히 쇠퇴하다가 907년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소멸했다.²⁶³⁾ 이 시기 중국선교는 잠시 중단되는 첫 위기를 맞이한다. 이 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경교가 너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권력에만 의지해서 일반 대중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황제가 통솔하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했다는 주장이다. 종교자유의 보호자요, 후원자요 친구였던 당나라 황실의 멸망이 곧 중국선교의 종결이 된 위기다.²⁶⁴⁾

두 번째 위기는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중국선교의 위

262) 김광성, "중국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 기독교 중국화에 대한 선교 실천적 대응," 47.

263) 김학관, 『중국교회사』, 34-35.

264) Moffett, 『아시아 기독교회사』, 495-497.